

# “20년 거래 일본서 발주오더 옮긴다는데...”

### 광주상의 日 수출규제기업대응 설명회서 지역기업들 불안 호소 정부 159개 품목 영향 분석...금형·센서 소재산업 어려움 예상

“지문인식 시스템을 개발해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최근 일본 측으로부터 물량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통보가 왔다. 정부는 사태의 본질을 규명해 근본 해결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광주 반도체기업 A사 대표>

“20년 이상 일본과 수출 관계를 맺었는데 최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 규제 후 일본측이 발주 오더를 중국으로 옮기거나 지연시키는 상황이다. 어찌해야 할 지 답답하다.” <광주 프레스금형업체 B사 대표>

“자동차설비업체인데 일본에서 특정부품에 대해 스펙을 걸어 제작해 달라고 주문이 들어온다. 하지만 해당 부품 공급이 원활할 지 두렵다. 부품 하나 때문에 완제품 수출이 불가능하다면 손실이 너무 크다.” <자동차설비업체 C사 임원>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일본 기업과 거래하

는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3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대응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파장과 대응책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날 설명회에서 오영해 전략물자관리원 정책협력실장은 일본 수출통제 제도와 대한국 조치 현황, 규제 대상 품목, 수출입 방법 등을 안내했다.

한국이 백색국가 지위를 잃으면 비(非)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여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캐치올)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뀐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 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 등 857개 품목이 해당된다. 여기에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에 걸

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중 이미 개별허가가 적용되거나 국내 미사용·일본 미생산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뺀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백색국가는 포괄허가 혜택을 받아 다수 수출 건에 대해 한번 종합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일반국가는 수출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유효기간은 통상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축소된다. 반대로 처리 기간은 1주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 길어진다.

문제는 의도적으로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우려다. 실제 1차 수출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은 한달 동안 단 1건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 기업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광주 전략산업의 하나인 금형 산업에는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공작기계의 경우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캐치올’ 품목에 수직제어 기계가 포함돼 있어 일본이 이 부분에 대

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캐치올 규제는 수출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라 해도 대량 살상으로 배제(수출)나 재래식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출할 수 없도록 전면 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성봉 한국금형산업진흥회 명예회장은 “기계장비의 70~80%는 모두 일본산”이라며 “당장 고장이라도 난다면 부품을 구할 수 없어 멈출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센서 소재 수입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센서는 광융합·의료기기·정밀기계 등 전 산업분야에 사용된다.

다만, 광주 주력산업인 자동차·가전·타이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아차 광주공장도 대표되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국산화율이 100%에 가까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장기적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있어 부품 수급을 주시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도 큰 걱정은 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내 타이어업체에서 타이어의 주 재료인 합성고무, 천연고무, 각 재료 합성에 필요한 소재 100여종의 원산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일본산 화학물질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극히 미량이고 국산이나 다른 나라 업체로 곧바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관계자도 “아직 가전업계에는 가시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철강·화학 산업이 밀집한 전남 동부권은 차별한 가운데서도 향후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계자도 “당장 조업이나 생산활동에 지장은 없다”며 “기본적으로 일관제철소의 특성을 갖는 광양제철소는 미리 연간생산계획을 수립, 원료나 자재를 사전 확보해 운영한다”고 말했다.

석유화학기업인 GS칼텍스도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협업 부서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인터넷진흥원-광주과기원 광주 특화산업 업무협약

나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일 광주과학기술원과 에너지·자동차·헬스케어 등 광주 특화산업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두 기관은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산업융합 촉진 및 사이버 보안 내재화 선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전문역량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보안 기술교류 및 공동 연구 수행 ▲AI 및 사이버보안 분야 전문 인력 교류 ▲AI 중심 산업융합 보안 내재화 협력 ▲지역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에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석환 진흥원장은 “AI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보안성 확보를 통해 AI 기반 인터넷 경제 혁신·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납품업체에 갑질 CJ올리브영 과징금 10억원

광주·전남 지역에서 7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부린 것으로 드러나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시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의 대규모유동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2017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적대입한 상품 57만여개, 41억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년 5개월 동안 31개 납품업체로부터 559명의 종업원들을 임의로 파견받아 매장에 근무하게 했으나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대출 연장·금리 인하·특별안정자금 공급

#### 시중은행,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총력전

금융 당국이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 제외 조치로 피해를 보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일본 수출규제 금융지원 특별대책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다. 광주은행 등 은행권도 피해기업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 금융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시중은행장들, 금융공기업 기관장들과 모여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대책’을 열고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일본 수출규제로 직접 영향을 받는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차입금을 일괄적으로 만기 연장해주고 신규자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연기 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연장을 추진한다.

또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기존 운영하던 특별자금·경영안정자금은 피해기업에 집중해 운영한다. 자금 규모는 산업은행 2조7000억원, 기업은행 1000억원 등 2조9000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은 3조8000억원 규모 피해기업 지원 전용 자금을 운용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자금 16조원 ▲보증 지원 1조5000억원 ▲인수합병 지원 2조5000억원 등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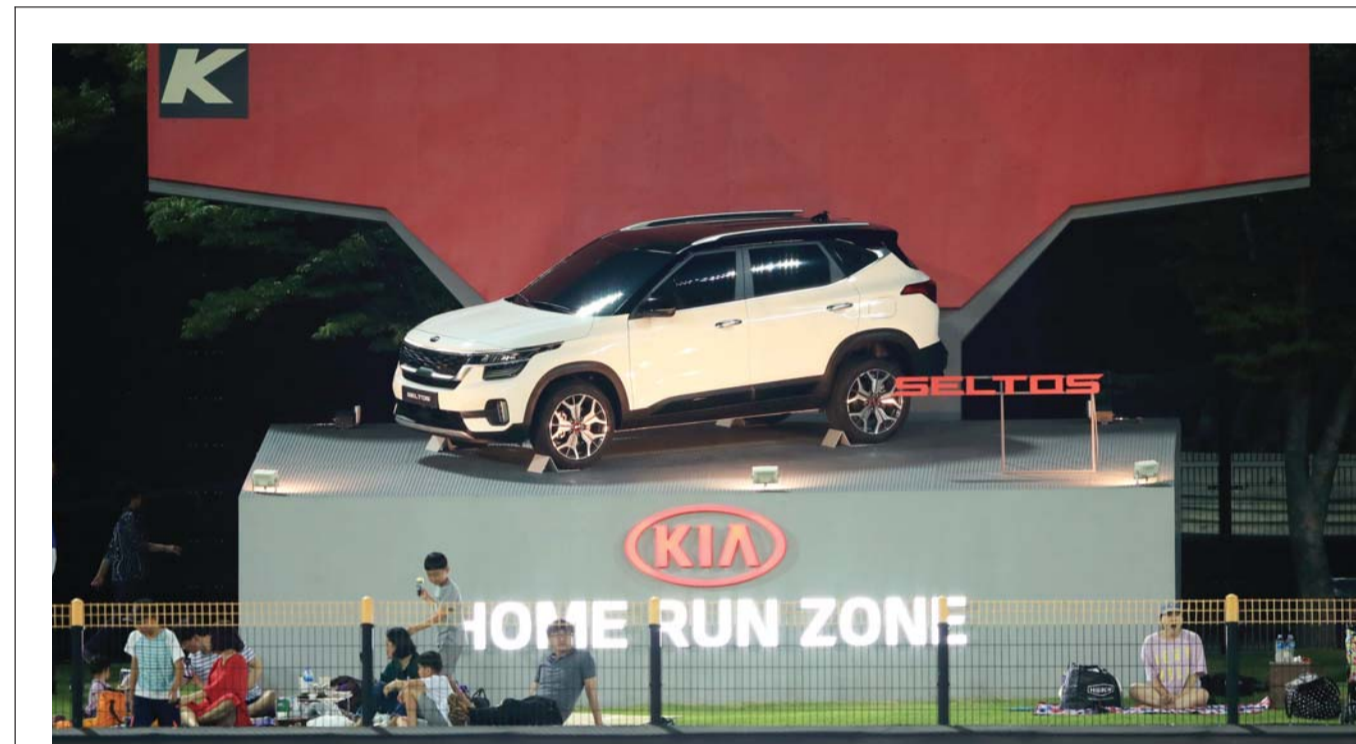
시중은행들은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2.0%포인트 깎아주는 등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우리은행은 피해 기업에 최대 1.2%포인트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등 3조원 상당의 지원책을 준비했다. 신한은행은 업체당 10억원까지 모두 1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고 NH농협은행도 5일부터 일본산 소재·부품 수입 기업에 할부상환금 납입을 최대 12개월 유예해주는 동시에 금리를 0.3%포인트 낮춰준다.

KB국민은행은 최대 2.0%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KEB하나은행은 ‘금융지원 대책반’을 신설하고 피해 기업 임직원에게도 대출금리를 최대 1.0%포인트 우대한다.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금융감독원 금융으로 신고센터 1332로 문의하면 된다. 금감원 광주전남지원(062-606-1635)과 광주은행(062-239-6540/6541)도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아차는 지난 3일부터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KIA 홈런존’에 신형차 ‘셀토스’를 전시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 ‘KIA 홈런존’ 하이클래스 소형 SUV ‘셀토스’로 교체

기아자동차와 KIA타이거즈가 지난 3일부터 ‘KIA 홈런존’ 전시 차량을 하이클래스 소형 SUV ‘셀토스’로 교체했다.

‘KIA 홈런존’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외야 우중간 잔디석에 설치되어있으며 구조물 위에 기아자동차 차량 1대가 전시되어있다. 홈런으로 차량이나 구조물을 직접 맞는 선수에게 해당 전시 차량을 증정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선수는 물론 원정팀 선수도 해당되며, 차량 대수 제한 없이 홈런존을 맞는 모든 선수에게 차량을 증정한다.

2014년 두산 김재환이 홈런존을 강타해 ‘K5’를 켜졌고, 2015년에는 KIA 최희섭이 ‘쏘렌토’를 가져갔다. 2017년 한

국시리즈에서는 두산 오재일이 홈런존으로 공을 보내 ‘스팅어’를 받았다.

한편 대박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에 다양한 첨단 사양을 갖춘 ‘셀토스’는 기아자동차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소형 SUV로, 누적 계약 대수가 1만 대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로또복권 (제870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21 25 30 32 40 42	31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928,842,988	10
2 5개 숫자+보너스숫자일치	66,973,715	48
3 5개 숫자일치	1,581,279	2,033
4 4개 숫자일치	50,000	102,000
5 3개 숫자일치	5,000	1,705,285

그린알로에

#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